

〈주요용어〉: 구술생애사 텍스트, 구술채록 과정, 서사맥락, 구술채록자의 해석, 제주해녀, 제주4·3사건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¹⁾

유철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이 채록한 구술자료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자화된 구술자료 텍스트만으로 인터뷰 상황에서 구술된 이야기가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 고이화의 생애사에 대해 서로 다른 구술채록자가 만든 두 가지 텍스트를 서사형식(narrative form)을 비롯한 텍스트의 구성과 구술채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제주해녀 고이화”라는 제목의 텍스트(전경옥·김은실·

* 제주대학교 교수, chulin@jejunu.ac.kr

1) 이 논문은 2006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초고의 일부는 한국구술사학회 2010 하계학술대회(6월 18~19일, 전북대)에서 발표되었다.

정기은 2004: 83-165)는 당초의 연구계획이 구술생애사 텍스트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제주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녀와 물질에 대한 사전 지식도 부족했다는 구술채록자의 속성도 구술생애사 텍스트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구술된 순서로 서술된 “고이화의 삶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의 텍스트(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79-114)에는 구술채록자의 질문이나 반응 같은 서사맥락(narrative context)이 제시되지 않았다. 구술채록자가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화자(話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술로 생산된 자료가 구술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구술채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구술자료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채록한 구술자료 텍스트를 제대로 읽으려면, 구술아카이브나 출판된 구술사 자료집의 텍스트에 서사맥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텍스트화 과정에서 구술채록자의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자화된 텍스트와 함께 녹음된 음성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윤택림 · 함한희 2006)는 구술사와 구술사 방법론의 특성, 구술채록 과정, 채록 후 기록 관리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구술사 자료집은 구술된 이야기를 문자화한 텍스트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술자료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김귀옥 2010 참조).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이 채록한 구술자료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자화된 구술자료 텍스트만으로 인터뷰 상황에서 구술된 이야기가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만 읽고 텍스트화 과정을 추론하겠다는 것은 구술채록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술된 이야기를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는 구술채록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유철인 2004: 21). 더군다나 구술채록자의 해석은 구술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유철인 2008: 453). 따라서 텍스트의 구성과 구술채록 과정을 통해 구술채록자의 해석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구술자의 생애사에 대해 서로 다른 구술채록자가 만든 두 가지 텍스트를 텍스트의 구성과 구술채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제주해녀 고이화”라는 제목의 텍스트(이하에서는 <한국여성사 텍스트>라고 함)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2002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과제인 <한국여성근현대사: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의 1차 연도 연구성과물로 출판된 『한국여성인물사』에 실려 있다(전경옥 · 김은실 · 정기은 2004: 83-165). 이 책은 구술채록 과정과 텍스트화 작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삶에 대한 해석을 후기로 신고 있다.

“고이화의 삶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의 텍스트(이하에서는 <제주여성사 텍스트>라고 함)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기획한 제주여성근현대사 구술자료의 첫 번째 자료집인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에 실려 있다(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79-114). 이 책의 일러두기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현장증언을 ... 단순하게 채집한”(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8) 구술자료집으로서 구술채록 과정이나 텍스트화 작업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구술생애사 텍스트만 신고 있다.

2. 텍스트의 구성

텍스트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텍스트가 구술생애사 이외에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술생애사의 서사형식(narrative form)과 주제가 무엇

인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약력과 〈제주여성사 텍스트〉의 소제목을 통해, 구술채록자가 구술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읽어 보겠다.

1) 〈한국여성사 텍스트〉

고이화의 〈한국여성사 텍스트〉는 약력, 잠수복 차림의 고이화 사진, 구술생애사, 질문지, 구술참여기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생애사에 앞서 소개된 고이화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전경옥 외 2004: 84, 이 절에서 같은 책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을 밝힘).

1916년 3월 6일. 우도에서 넷째 딸로 출생
 1924(9세). 해녀 일(물질) 시작
 1929년(14세). 일본에서 물질
 1931년(16세). 우도에서 항일운동 참여
 1931 ~ 1957년.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26년간 일함
 1933 ~ 1935년. 대마도에서 해녀 일함
 1933년(18세). 첫 번째 결혼(원치 않았던 결혼으로 결혼식 날 도망하여 6일간 숨었다가 이혼)
 1936년(21세). 황해도, 충남 서산에서 일함
 1937년(22세). 이정옥과 재혼
 1938년(23세). 큰아들 출산
 1939년(24세). 대마도에서 임신하고도 해녀 일함
 1945년(29세). 남편이 신문기자로 부산에 감
 1947년(31세). 남편 이정옥 사망
 1948년(32세). 4·3사건으로 집안 어른들이 몰살당하고 재산과 가옥을 빼앗김
 1957년(41세). 백령도에서 일함

1963년(48세). 딸 데리고 백령도에서 물질, 미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1992년(78세). 상군 해녀로 계속 활동

2000년(85세). 전복을 따는 등 깊은 물질을 계속 함

2001년(86세). 제1회 제주해녀상 수상

2003년(88세). 현재 하도리 구좌읍에 거주, 지금도 갖물질을 함

약력에는 고이화가 2001년에 제1회 제주해녀상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에 제주해녀상을 받았다. 또한 몇 개 연도(1945년, 1947년, 1948년, 1957년, 1992년 등)의 고이화의 나이는 틀리게 적혀 있다. 아니면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이다. 구술자는 종종 “몇 살 때”와 같이 자기의 나이로 머릿속에 그려진 시간을 말하곤 한다. 구술자의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술자료를 텍스트로 만들 때, 주관적인 시간과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시간은 잘 맞아야 한다(유철인 2008: 454). 또한 제주해녀상을 수상한 연도처럼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개월에 걸쳐 녹취작업과 표준어화 작업을 한(357쪽) 고이화의 구술생애사는 화소(話素)별로 표준어 텍스트를 먼저 제시하고, 인용문으로 처리한 제주어 텍스트를 병렬로 실었다. 구술된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를 달고 참고자료를 텍스트 중간에 박스 기사로 제시하였는데, 박스 기사의 제목은 〈제주해녀〉, 〈제주해녀항일투쟁〉, 〈제주여성〉, 〈4·3사건〉 등이다. 그러나 박스 기사로 제시한 참고자료와 각주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구술생애사는 28개의 소제목을 달아 연대기적으로 고이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표 1〉과 같이 크게 9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구성

이야기의 주제	텍스트의 소제목
1. 어린 시절 물질 이야기	1) 평대기 평대기 했주
	2) 이디 성복식다 성복식다
	3) 그 땐 애기상군 애기상군 헐에
	4) 성복은 우끼태와서 일본 드래가곡
2. 항일운동 이야기	5) 항일운동 이렇게 일으켜야 이제 조선을
	6) 소섬 사름이 종달리 일본놈광 싸우래 왔다고
	7) 소나이 하나 나타나질 안 해연
3. 일제강점기 바깥물질 이야기	8) 저 이화 하나만 신경 땡기랜
	9) 일본 사람 전주가 아무리해도 고정적이라
	10) 일본 세상이라노니까 아무것도 허지 못허곡
	11) 용궁을 육상을 삼아 돈 벌어강
4. 시집간 이야기	12) 어평햄 조으코 이제 늙은 비바리 뵈젠
	13) 이혼을 해주크메 이젠 살아만 나라
	14) 신랑 새각시 구허연 옷해 주고 장개 보낸 사름이
	15) 소나이엔 허른 그렇게 신물이 났다
5. 재혼한 이야기	16) 이제 해너질은 아이허민 가불켄
6. 물질/바깥물질 이야기	17) 나 용왕문 보거랜허민
	18) 숨을 셔도 갈라정 억세난 물랐주게
	19) 어머니 말은 몰라 가지고
7. 남편이 사망한 이야기	20) 아이들을 고아원이 강 맥끼곡
8. 제주4·3사건 이야기	21) 각시 마누라게 세 개행 살아세게
	22) 죽을 사람 죽어시민 털이나 억울허지
	23) 그 피 별경헌 소숨이 네성제를 심영 가네
	24) 총으로 팡팡 쏘앙 죽여비였겐
9. 회고담으로서의 가족 이야기	25) 나가 췌 가슴 아픈 것은
	26) 사둔이영 붙어먹영 옥희가 났다
	27) 나가 얘기덜 목적행 세상을 살았는디
	28) 천사가 되고파 천사 오만고통 다 잊어불곡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아홉 가지 이야기는 물질 이야기(어린 시절 물질 이야기, 일제강점기 바깥물질 이야기, 물질/바깥물질 이야기), 항일운동 이야기,

가족 이야기(시집간 이야기, 재혼한 이야기, 남편이 사망한 이야기, 회고담으로서의 가족 이야기), 제주4·3사건 이야기 등 네 가지로 다시 요약될 수 있다. 가족 이야기 중 시집간 이야기와 재혼한 이야기 속에도 물질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거론된다. 결국 고이화의 구술생애사는 물질, 항일운동, 가족, 제주4·3사건 등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구술채록자가 구술자의 삶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약력을 보면, 구술채록자가 얼마나 구술자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술생애사를 채록하였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약력과 구술생애사를 비교해 보자.

약력에는 열네 살이던 1929년에 일본에서 물질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화는 “열네 살에 귀가 병신 됐어. 힘이 약한데 그 물 속에 수십 깊은 데에 억지로 들어가면 귀가 아파 버렸단 말이야”(88쪽)라고 이야기했지, 구술생애사 어디에도 열네 살 때 일본에서 물질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고이화가 우도를 떠나 바깥물질을 처음 갔던 곳은 열다섯 살이 되던 해(1930년)에 갔던 미날구미이다(91쪽). 미날구미는 거제도의 지명이나, 텍스트의 각주에는 부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구술자가 미날구미를 부산의 지명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술채록자가 지명을 잘못 조사한 것이다. 고이화가 일본으로 바깥물질을 처음 갔던 때는, 약력에도 소개되었듯이, 대마도의 사스나(奈)에 가서 물질을 한 열여덟 살(1933년) 때이다(115쪽). 텍스트에는 사스나를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 혹은 구술채록자가 들은 대로 ‘사수나’로 표기하였다.

약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1931년(열여섯 살)부터 1957년(마흔두 살)까지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26년간 일했다는 것이다. 구술생애사를 보면, 고이화는 “열여섯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그 북해도 사람들이 충남에 해너를 모집해 갔어. 거기 가서 이제 이십육 년을, 그 일본놈들한테 꼭 잡혀서 해너질을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14쪽). 구술채록자가 이 부분을 문

자화한 텍스트만 보면, “이십육 년”과 “일본놈들한테”라는 단어가 쉽표로 처리된 한 개의 문장이므로 26년간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물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6년간 “거기”(충남)에 가서 물질을 했다는 것인지, 26년간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물질을 했다는 것인지는 인터뷰 음성자료를 들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6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술채록자는 인터뷰 현장에서 이해하거나 음성자료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녹취를 할 때 이해해야 한다. 설사 이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구술생애사의 다른 부분과 대조하여 보면 26년의 의미는 파악된다. “이십육 년”을 이야기한 대목 이전에 충남에서 “이십오 년”을 물질했다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또 열여섯엔 사삼사건, 아니 항일운동 끝나서 충청도로 갔어. 워낙 해녀질을 잘 하니깐 인솔자가 막 가자고 하는 거야. 충남 안면리(서산)에서 이십오 년 [일하고], 스물하나에 등산리. 등산리[에는] 일본 사람하고 갔어”(109쪽).

더군다나 구술생애사에서 이십육 년을 이야기한 대목이 나온 페이지(114쪽)에 같이 실은 『여성신문』(2001년 8월 24일자)의 기사를 보면, 고이화가 해방 이후까지 포함하여 26년간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물질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성신문』의 고이화 인터뷰 기사 제목은 “바깥물질해서 일본에 바친 15년 돌려받고 싶다”로, 기사 중 인용한 고이화의 이야기에 “15년간 대마도에도 가고 충남에도 가고 … 15년간 봉사한 거 돌려받고 싶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고이화는 26년간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물질을 한 것이 아니라, 25~26년간 충청도에서 물질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약력에 고이화가 1929년에 일본에서 물질을 하였고, 1931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 사람에게 고용되어 26년간 일했다는 대목이 왜 잘못 들어가 있을까. 당초 연구계획(368쪽)에서 항일운동가로 설정하였던 구술자의 속성 혹은 구술자에 대한 선입관이 약력에 잘못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고이화의 약력 중 1963년(48세) 이후의 삶은 구술생애사에 나오지 않는다. 1963년에 딸을 데리고 백령도에서 물질하다가 미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1992년(약력에 78세로 되어 있으나 77세가 맞음)과 2000년(85세)에도 깊은 물속에서 전복을 따는 물질을 했다는 약력의 내용이 구술생애사의 이야기로는 나오지 않는다. 약력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구술채록 과정에서 고이화는 1963년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1963년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중 회고담을 제외한 다른 이야기는 구술생애사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고이화를 구술채록한 연도의 연구계획이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시기의 인물사였기(6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술채록자는 일제강점기 때 물질이야기가 해방 이후의 물질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1948년에 일어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구술생애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구술채록자가 제주4·3사건을 구술자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해석하였기(163, 360쪽) 때문이다. 구술채록자는 “결국 4·3사건으로 인해 몰수당한 집과 밭 때문에 작은 아들의 원망을 듣게 됐고, 그것이 끝내 (고이화) 할머니 가슴에 멍우리로 남았다”(163쪽, 필자 첨가)고 해석하였다.

2) <제주여성사 텍스트>

고이화의 <제주여성사 텍스트>는 짐수복 차림의 고이화 사진, 고이화를 소개한 짧은 글, 구술생애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생애사에 앞서 고이화를 소개한 글은 다음과 같다(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79, 이 절에서 같은 책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을 밝힘).

고이화(89세)는 제주해녀상 1호 수상자이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에서 홀로 살고 있다. 1930년부터 일기 시작한 <제주해녀항일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한 살아 있는 증인이기도 하다.

부자집에, 배운 남편에게 시집왔으나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 버린데다 <4·3 사건> 등 제주 근현대사의 한가운데서 온갖 격변을 체험하였다.

그래도 물질을 잘한 덕분에 육지부 등지로 활발하게 출가하여 생계를 도맡아 꾸려왔다. 지금도 물질을 하면서 혼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말할 때 조금 더듬기는 하지만 기억력이 출중하여 몇 십 년 전 일을 매우 생생하게 증언해 내는 이야기꾼(story teller)이기도 하다.

고이화를 소개한 글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그녀를 제1회 제주해녀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비슷하다. 그녀가 제주해녀항일운동에 가담한 해녀이기도 하면서 “홀몸으로 제주도 역사와 함께 모진 풍파를 헤치며 4남 1녀를 키운, 당찬 제주 여성의 표상”이라는 것 때문에 제주해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중앙일보』 2000년 8월 10일자).

구술자료집의 일러두기(8쪽)에서 “구술자의 구술 당시 언어사용에 따라 채록·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밝혔듯이, 구술생애사 텍스트는 제주어를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또한 일러두기에서 “채록·정리자가 내용전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고이화의 구술생애사는 구술된 순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술생애사는 22개의 소재목을 달아 구술된 순서로 고이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표 2>와 같이 크게 13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 <제주여성사 텍스트>의 구성

이야기의 주제	텍스트의 소재목
1. 인터뷰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	1) 늑그막의 소일거리
	2) 물에 들이쳐 난...
2. 제주4·3사건 이야기	3) 남편과 시대의 사건들
3. 물질 이야기	4) 우도에서의 피난살이
	5) 상군 물질, 미국인의 실험
4. 딸 낳은 이야기	6) 딸 3나 봉강
5. 시체와 배의 기계를 건져준 이야기	7) 백령도 출가물질
	8) 문밖 돌아나비연
	9) 소섬 행실
	10) 추는 곳
6. 살림하느라 고생한 이야기	11) 내 세상천지 다 돌아도
	12) 감지 빼빼기 술
7. 친정식구들 이야기	13) 고향, 친정식구들
8. 항일운동 이야기	14) 항일운동
9. 해녀상을 받은 이야기	15) 해녀상
	16) 바당을, 수심을 재어서
10. 시집간 이야기	17) 시집
	18) 신랑을 장가보내다
11. 바깥물질 이야기	19) 출가물질
12. 재혼한 이야기	20) 재혼
13. 회고담으로서의 물질 이야기	21) 물질
	22) 신랑보다 좋은 바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제외한 열두 가지 이야기는 제주4·3 사건 이야기, 물질 이야기(물질 이야기, 시체와 배의 기계를 건져준 이야기, 바깥물질 이야기, 회고담으로서의 물질 이야기), 가족 이야기(딸 낳은 이야기, 살림하느라 고생한 이야기, 친정식구들 이야기, 시집간 이야기, 재혼한 이야기), 항일운동 이야기, 해녀상을 받은 이야기 등 다섯 가지로 다시 요약될 수 있다. 해녀상은 항일운동에 참여했고 물질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고이화의 구술생애사는 제주4·3사건, 물질, 가족, 항일운동 등 네 가지 주

제를 담고 있다.

텍스트의 소제목은 구술채록자가 구술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붙인 것이다. 그러나 소제목 중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게 붙인 소제목도 있고, 무리한 해석에서 나온 소제목도 있다. <표 2>에서 시체와 배의 기계를 건져준 이야기로 분류한 8번째 소제목부터 10번째 소제목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게 붙여진 소제목들이다. 고이화는 백령도 바깥물질에 대한 이야기(7번째 소제목)에서 같이 간 해녀가 죽어 장사를 지낸 이야기 끝에 일흔일곱 살 때(1992년) 물질을 하다가 시체를 건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시체를 건진 이야기의 소제목을 '몬딱 돌아나비연'(8번째 소제목)으로 붙였다. 표준어로 모두 달아나 버렸다는 뜻의 소제목이다. 물속에서 시체를 보고 다른 해녀들은 모두 달아났다는 것이 구술자가 하려던 이야기는 아니다.

일흔일곱 살 때 시체를 건진 이야기는 첫 번째 결혼식(1933년, 18세)을 마친 다음 날 우도에서 물질을 하다가 시체를 건진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의 소제목은 '소섬 행실'(9번째 소제목)이다. "그 이, 소섬은 그런 행실이 이서 게. 시집가며는 (새각시)상 받아나민 친정더래(친정으로) 오라부는거라. 친정더래 오랑 싯당 어둑위가민 (시집더래) 가는 거라"(92쪽)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친정이 있는 소섬(우도)에서 물질을 하다가 시체를 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소섬의 행실(관습)을 거론한 것이지, 소섬의 행실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은 아닌 것이다. 우도에서 시체를 건진 이야기는 충청도에 물질 갔다가 좌초된 배의 기계를 건진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의 소제목은 '추는 곳'(10번째 소제목)이다. 이야기는 우도에서 시체를 건진 뒤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큰 굿을 8일 동안 했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핵심 내용은 물질하면서 좌초된 배의 기계까지 건졌다는 것이다.

'상군 물질, 미국인의 실험' 이라는 5번째 소제목은 무리한 해석에서 나온 소제목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마흔다섯 살(1960년) 때 제주시 앞바다에

서 잠수복을 입은 미국 사람도 잡지 못한 전복을 땀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고무옷 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유철인 1998: 104). 구술채록자는 고무옷이 아닌 물옷을 입고도 전복을 땀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미국인이 고이화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구술채록자의 해석은 너무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3. 구술채록 과정

<한국여성사 텍스트>는 구술채록자의 '구술참여기'를 제시하였고, 구술생애사에 대한 해석도 실었기 때문에 구술채록자가 구술채록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술생애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구술채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 이에 비해 <제주여성사 텍스트>의 구술생애사는 구술된 순서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구술채록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자화된 구술생애사 텍스트만으로는 구술자와 구술채록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사 텍스트>에서는 구술채록자의 속성이 구술채록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제주여성사 텍스트>에서는 구술채록자가 어느 대목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지 살펴보겠다.

1) <한국여성사 텍스트>

<한국여성사 텍스트>는 텍스트가 실려 있는 책(전경옥 외 2004, 이 절에서 같은 책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을 밝힘)의 공동저자인 김은실이 구술채록과 녹취를 하여 만든 것이다(165, 357쪽). 저자 약력에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로 소개된 김은실이 고이화를 인터뷰하여 구술을

채록한 때는 2003년 2월과 6월, 두 차례였다(353~355쪽).

2월에는 세 차례 인터뷰를 했고, 녹취 작업을 마치고 난 후인 6월에는 심 인터뷰를 하였다. 1차 인터뷰는 고이화를 소개해 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위원장과 참여연대(서울에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인지, 제주에 있는 <참여환경연대>인지 분명하지 않음) 취재진과 함께 1시간가량 이루어졌다(354쪽). 첫 번째 만남에서 구술채록자는 “갑자기 할머니 입에서 쏟아지는 제주 방언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사전에 공부해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 방언이) 심했다”(162쪽, 필자 첨가)고 한다.

그러나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던 2차 인터뷰에서는 “어느새 친근하게 된 우리는 ‘여자끼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 (중략) … 얘기의 고리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풀어나갔고, 어느 곁에 우리는 한덩어리가 되어 통역 없이도 대화가 가능해졌다”(162~163쪽)고 한다. 2차 인터뷰를 한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점심까지 진행된 3차 인터뷰에서는 “연구자와 구술자 간에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구술자가 자신의 생애를 ‘한풀이’ 형식으로 이끌어 내면서 구술작업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355쪽)고 한다. 따라서 구술채록자는 구술채록 작업 중 구술채록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술채록은 “세부적인 질문이 구술자의 능동적인 구술과 병행”(355쪽) 되었다고 하는데, 구술채록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160~161쪽)는 주로 식민지 제주와 해녀에 대한 질문(해녀생활, 일제 강점기 제주, 1920~30년대 해녀의 삶 등)과 해녀항일투쟁에 대한 질문(전개 과정 및 원인,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관성, 투쟁 이후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술생애사 텍스트에서는 구술채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구술자의 어떤 이야기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구술자 스스로 풀어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연대기적 서술이라는 텍스트화 작업의 편집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편집

방침은 책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술생애사를 읽어 보면, 구술채록자는 미리 준비한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못한 듯싶다. 제주해녀 항일운동에 대해 고이화는 “내가 세상 물정을, 일본놈이 어떤 놈인지 [몰랐지]. 뭐, 소심 사람 주제에 성산도 한 번 못 가 보고 그랬는데 뭐. 세상물정을 몰랐어”(99쪽), “그땐 아 이 때라서 어리숙했지, 어린 땐 순진하지”(103쪽), 그리고 “항일운동할 때에는 아~ 무 것도 모르는 때라서 길에만 섰었지. 동무도 없고~”(109쪽)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구술채록자가 미리 준비한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구술자가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술채록자는 채록 작업 중 고이화가 말하는 제주어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구술채록자는 “중간에 통역을 세워 보기도 했으나,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져서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진행하기도 하였다”(355쪽)고 한다. 구술자의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현장에서는 큰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구술채록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녹취 작업과 표준어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제주 방언을 잘 몰랐고,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녹취자료를 보면서 방언풀이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 이외에 8명이 동원되었고, 꼬박 6개월에 걸쳐 녹취와 편집을 하였다”(357쪽).

40대 이상의 제주 사람들이 문자화된 녹취자료만을 가지고 표준어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녹음된 음성자료를 들으면서 녹취자료의 내용을 풀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녹취자료를 보면서”라는 글귀를 ‘녹취자료만’ 보면서 내용을 풀이했다고 해석한다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와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녹취자료만 읽고 표준어로 옮기는 작업은 어려운 법이다. 제주어를 잘 모르는 구술채록자가(혹은 젊은 제주 사람과 같이) 녹취작업을 했기에(357쪽), 녹취문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옮겨졌는지에 따라서도 표준어화 작업을 한 사람이 구술내용을 이해

하는 정도가 달랐을 것이다. 제주어를 잘 아는 사람이 녹취작업과 표준어화 작업을 같이했다면, 구술생애사 표준어 텍스트가 더 정확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어로 호미는 낫을 가리키는데(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883), 표준어 텍스트에서는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 ‘호미’로 표기하였다(104쪽). 제주어의 골갱이가 표준어의 호미에 해당된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128). 118쪽에서는 고이화가 “감태 조무는 걸 워낙 잘해노니까”라고 말한 그대로 표준어 텍스트에 “감태 조무는 걸 워낙 잘하니까”로 풀이해 놓았다. ‘궤물다’라는 제주어에는 주로 해산물을 채취하다는 뜻과 날이 저문다는 뜻이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794). 따라서 고이화의 말을 표준어로 풀이하면, “감태를 채취하는 걸 워낙 잘하니까”라는 말이다.

제주어를 잘 모르는 구술채록자가 구술을 채록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녹취 작업과 표준어화 작업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표준어 텍스트는 잘 옮겨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구술채록자가 해녀와 물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술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술채록자는 고이화가 제주해녀 항일운동에 참가한 사람이기에 구술자로 선정하였다(163, 360, 368쪽). 그러나 구술채록을 하고 텍스트를 만들면서, 고이화를 해녀라는 전문직업인으로 평가하였다(165, 368쪽). 그렇지만 구술채록자는 해녀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91쪽에서 고이화가 “막 우묵가사리하고, 생복하고, 미역하고 또 곱포허고…”라고 말한 것을 표준어로 “막 우묵가사리하고, 생복하고, 미역하고 또 곱포하고…”라고 거의 그대로 풀이하였다. 곱포는 곤포(昆布)를 말한 것으로, 다시마와 같은 말이다.

112쪽에서도 같은 예가 보인다. 고이화가 “우묵가사리, 천추, 천추가 이만큼 해”라고 말한 것을 표준어 텍스트에서도 거의 같게 “우묵가사리, 천추, 천추가 이만큼씩 해”라고 풀이해 놓았다. 천추는 천초를 말한 것으로, 우묵가사리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고이화는 같은 뜻의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구술채록자가 구술성을 살리기 위해 천추리는 단어

를 그대로 살린 것일까. 텍스트에는 우묵가사리라는 단어에만 각주가 달려 있고 각주의 내용에 천초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술채록자는 천초가 천초를 말한 것임을 몰랐고, 따라서 우묵가사리와 천초가 같은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판단된다.

2) <제주여성사 텍스트>

<제주여성사 텍스트>는 텍스트가 실려 있는 책(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이 절에서 같은 책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을 밝힘)의 편집위원인 한림화가 구술을 채록하고 정리한 것이다(114쪽). 편집위원 약력에 작가로 소개된 한림화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해녀에 관한 책(1987)과 제주 4·3사건을 다룬 장편소설(1991)을 썼다. 따라서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구술채록자와 다르게, 한림화는 구술자의 제주어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술생애사의 핵심 주제로 드러난 제주 4·3사건과 해녀의 물질에 대해 사전 지식이 풍부한 구술채록자라 할 수 있다.

구술생애사는 구술자의 목소리를 이야기한 순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편집을 최소화하여 구술성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구술채록자의 목소리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구술생애사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구술자와 구술채록자의 상호작용을 알아내기 어렵다. 구술채록자가 고이화를 인터뷰하여 구술을 채록한 때조차 추론할 수밖에 없다.

2004년 2월에 책이 출판되었으며, 책의 말미에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우리는 많은 할머니를 만났다”(658쪽)고 적고 있다. 책에서는 일본 오사카에서 구술채록을 한 때가 2003년 7월이라고 유일하게 채록 시기를 밝혔다(507쪽). 고이화의 구술생애사 텍스트에 “이제 혼, 혼 들(허고) 메틀(며칠) 남아세…저-아흔 아니가 게…이제 요든아홉 아이기”(93쪽)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1월에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화는

2004년에 우리 나이로 여든아홉 살이 되었다.

구술채록자는 인터뷰를 시작할 때 구술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구술채록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문자화하였다. “돈주머니, 아이고 야- 정도(그렇게도) 곱게 만들어시카? 나가 이제 맨들암세 게(만들고 있잖아) 미싱행(재봉틀을 해서) 게”(80쪽). “돈주머니, 아이고 야- 정도(그렇게도) 곱게 만들어시카?”라는 문장은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첫 문장이다. 구술채록자가 인터뷰를 하러 가서 재봉틀로 돈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고이화를 보고 인사말을 건넨 것이다.

구술채록이 시작된 후, 고이화는 “게난 우리집 아방이 옛날 일본서 저 사업대학교 해나세”(81쪽)라는 말로 제주4·3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주4·3사건 이야기는 구술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첫 번째로 끄집어 낸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구술채록자가 제주4·3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본 것일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구술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몇 마디는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유철인 1996, 1998 참조). 반대로 구술채록자가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은 구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구술채록의 목적을 드러낸다. 따라서 고이화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구술생애사 텍스트로만으로는 이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 텍스트에는 구술채록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녹음된 음성자료를 들어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술채록 중 구술채록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이화는 잠수복을 입은 미국 사람이 잡지 못한 전복을 뺏던 이야기 끝에 마흔두 살에는 충청도에 가서 바깥물질을 했다고 말하였다(87쪽). 그러다가 구술자에게 충격적으로 일어났던, 겁탈을 당하여 딸을 임신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였다(87~88쪽).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백령도 바깥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ㄱ만(가만) 서(있어)봐. 그 저, 거서기 굴아뿔(말하여

두고).....내 그걸 ㄱ레대로.....”(88쪽)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분명 구술채록자가 무언가 말을 하여 다시 바깥물질로 화제를 돌린 것이다.

고이화는 충청도에 가서 바깥물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백령도 바깥물질 때 어린 딸을 데려갔다 잃어버릴 뻔했던 일이 기억난 것이다. 그러자 딸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꼬리를 문 것이다. 구술자는 옛 일을 회고하면서 기억이 나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술채록자가 이야기를 끊고 본론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인터뷰 방식이다(유철인 2008: 451). 이런 경우에 구술자의 기억은 조각이 나고 만다. 사람의 기억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술채록자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고이화는 물질을 하면서 시체까지 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제주4·3사건 이후의 힘든 삶이 다시 기억났는지, 제주4·3사건 이후 동남길과 술장사까지 해서 살아난 이야기를 한다(95~96쪽). 그 다음의 이야기가 고향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저 고향이 소섬 게, 소섬... 이디 소섬서 나난(태어났으니까)...”(97쪽)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쯤에서는 구술채록자가 고향(혹은 어린 시절이나 친정식구)에 대해 물어본 듯하다. 구술채록자는 고이화가 시집을 가기 전 생활을 듣기 위해 고향을 물은 것이리라. 이전까지 고이화는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한 1937년(22세)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다.

고향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주: 팔뚝에 난 큰 상처를 보이면서) 항일운동 때에 두드러분 거 아니가 게”(98쪽)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구술채록자가 항일운동에 대해 물어본 것임에 틀림없다. 고이화는 자기의 몸에 난 상처를 잊고 있다가, 제주해녀상을 받은 후 여러 신문사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찾아와 제주해녀 항일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자, 다시금 상처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구술채록자가 고향에 대해 묻고 난 후 바로 항일운동에 대

해 물어보았다면, 고이화가 제주해녀 항일운동에 참여한 때가 혼인하기 전 고향에 살던 때였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대해 물어보기 위한 실마리로 고향을 물은 것도 같다.

고이화가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다가 해녀상을 받은 이야기로 넘어간 것은 항일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해녀상을 받은 직접적인 원인이기에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 다음 이야기가 시집간 이야기인데, “시집은 이, 열 술에부터 중뎀 온 디 이…”(102쪽)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도 구술채록자가 결혼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화는 시집을 갔다가 마음에 맞지 않아 도망을 나온 후, 신랑의 시부모와 함께 바깥물질을 하여 번 돈으로 신랑을 장가보낸 이야기를 하였다. 고이화가 바깥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에게 잘 퍼주는 이야기로 새자, 구술채록자는 “저-○○하르방이영 안살안 뿔년만이 이 디 시집오게 되신고?”(107쪽)라고 재혼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구술채록자의 이 질문도 처음 인사말처럼 구술채록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텍스트에 표시하지 않았다.

4. 맺음말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는 생애사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거의 같다.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한국여성사 텍스트〉나 구술된 순서로 만들어진 〈제주여성사 텍스트〉나 고이화의 구술생애사는 제주4·3사건, 물질, 가족, 항일운동 등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연구계획에서는 구술자를 항일운동가로 설정하였고, 〈제주여성사 텍스트〉에서도 “〈제주해녀항일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한 살아 있는 증인”으로 구술자를 소개하였다. 따라서 고이화가 제주해녀 항일운동에 참가했던 해녀라는 점은 구술채록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녀의 생애사를 채록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사 텍스트〉에서는 제주4·3사건

이 구술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고, 〈제주여성사 텍스트〉는 구술자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구술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20년대에 출생한 세 명의 제주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비교한 연구(유철인 2010)를 보면, 구술채록자가 제주4·3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도 모든 구술자들은 제주4·3사건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20대 기혼여성들로, 제주4·3사건이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고이화 역시 제주4·3사건으로 가족생활의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구술채록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구술생애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구술생애사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두 가지 텍스트가 조금 다르다.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구술채록자는 제주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해녀와 물질에 대한 사전 지식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구술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고이화를 구술채록한 연도의 연구계획이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시기의 인물사였기 때문에 1945년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구술생애사 텍스트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구술자를 항일운동가로 설정하였던 선입관 때문에 구술자의 약력에 일본과 관련된 사항이 잘못 들어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여성사 텍스트〉의 구술채록자가 고이화를 해녀라는 전문직업인으로 평가하였지만, 고이화의 물질 경험이 〈제주여성사 텍스트〉에 비해 강조되지 않았다. 〈제주여성사 텍스트〉의 구술생애사에만 등장하는, 딸을 데리고 백령도에서 바깥물질을 한 이야기와 일흔일곱 살 때(1992년) 물질을 하다가 시체를 건진 이야기를 읽어 보면, 두 이야기도 구술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술생애사의 채록자는 구술된 이야기를 듣는 청자(聽者)이면서 동시에 편집된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화자(話者)이기(김성례 2002: 57) 때문에, 구술생애사 텍스트는 구술자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구술채록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유철인 2008: 454). 구술생애사에서 구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특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된 경험이 구술자의 전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구술채록자가 보여 줄 때 구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다(유철인 2004: 35).

〈제주여성사 텍스트〉는 구술채록자가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화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구술자의 목소리만을 담으려 했지만, 정작 구술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다. 구술채록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생략하고 구술자료가 출판될 때, 구술자의 목소리는 왜곡된다(포르텔리 2010: 90). 더군다나 구술된 이야기를 그대로 문자화하여 텍스트가 되었을 때에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유철인 2004: 21). 말과 글의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여성사 텍스트〉처럼 구술생애사 텍스트가 연대기적 서사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제주여성사 텍스트〉처럼 구술된 순서 그대로의 서사형식은 구술자의 서술의 흐름과 기억의 연 고리를 이해하는 데 연대기적 서사형식보다 더 도움이 된다.

구술자의 서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술채록자의 질문이나 반응 같은 서사맥락(narrative context)이 구술생애사 텍스트에 제시되어야 한다. 〈제주여성사 텍스트〉에는 이러한 서사맥락이 제시되지 않았다. 구술자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구술을 시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구술자 스스로 끄집어낸 것인지 구술채록자가 먼저 물어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국여성사 텍스트〉에서도 구술채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구술자의 어떤 이야기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구술자 스스로 풀어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한국여성사 텍스트〉는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구술자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구술채록자가 맨 처음 무슨 질문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두 가지 텍스트 모두 녹음

된 음성자료를 들어야만 텍스트의 서사맥락을 알 수 있다.

구술된 생애사를 문자화된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구술자료의 구술성과 공동작업의 성격을 재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술채록자와 구술자의 관계 및 구술 상황이라는 텍스트의 서사맥락을 제시해야 하고, 구술채록자가 편집자로서 어떻게 텍스트를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유철인 2008: 453). 〈한국여성사 텍스트〉는 이를 어느 정도 밝혔지만, 〈제주여성사 텍스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하다.

구술로 생산된 자료가 구술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구술채록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 구술자료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유철인 1990, 2010; Ritchie 2003: 24). 다른 사람이 채록한 구술자료 텍스트를 제대로 읽으려면, 구술아카이브나 출판된 구술사 자료집의 텍스트에 구술채록자의 질문이나 반응 같은 서사맥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텍스트화 과정에서 구술채록자의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자화된 텍스트와 함께 녹음된 음성자료(혹은 녹화된 동영상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4, 『현황과 방법, 구술 · 구술자료 · 구술사』,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귀옥, 2010, “구술사에 의한 역사적 글쓰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구술학회 2010 하계학술대회(6월 18일~19일, 전북대) 발표논문.
- 김성례, 200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31-64.
- 유철인, 1990, “생애사와 신세타령: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2: 301-308.
- _____,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7-419.
- _____,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97-117.
- _____, 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3-39.
- _____, 2008, “지방사 연구와 인류학: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편, 『지방사연구 입문』, 서울: 민속원, pp.442-459.
- _____, 2010, “4·3 경험에 대한 여성(의)구술사/여성주의 구술사,” 제주4·3연구소 2010년 국제학술대회(10월 8일~9일, 제주대) 발표논문.
- 윤택림 ·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전경옥 · 김은실 · 정기은, 2004, 『한국여성근현대사 1: 개화기~1945년, 한국여성인물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편, 2004, 『제주여성 근 · 현대사 구술자료 1: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 제주도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문화예술재단 편, 2009,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포르텔리, 알레산드로(Alessandro Portelli), 2010(1991), “무엇이 구술사를 다르게 하는가?”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pp.77-94.
- 한국구술사연구회 편,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

- 한림화, 1987,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서울: 한길사.
- _____, 1991, 『한라산의 노을』 전 3권, 서울: 한길사.

Ritchie, Donald A., 2003, *Doing Or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자료〉

- 『여성신문』 “바깥물질해서 일본에 바친 15년 돌려받고 싶다: 인터뷰 항일운동 참여 1회 제주해녀상 받은 고이화 할머니”(조이여울), 2001. 8. 24일자.
- 『중앙일보』 “‘바당이 내 평생의 고향이쥬’: 제주해녀상 첫 수상 고이화 할머니”(양성철), 2000. 8. 10일자.

투고일자 : 2011. 1. 5 심사일자 : 2011. 1. 15 게재확정일자 : 2011. 2. 25

Abstract

〈key words〉: oral life history text, oral history interview, narrative context, interviewer's interpretation, Jeju *haenyeo*[women divers], Jeju April Third Uprising

Presenting Oral Life History:
A Comparison of Two Texts of Jeju *Haenyeo*, Ko Ihwa

Yoo, Chul-In*

In order to examine how the written text is constructed from oral storytelling, this paper compares two oral life-history texts narrated by Jeju *haenyeo*, Ko Ihwa,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texts and the structure of the oral history interview. The text titled "Jeju Haenyeo Ko Ihwa" is presented chronologically. It is mostly shaped by the research plan and also by the interviewer who does no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Jeju dialect and the *haenyeo*, the women divers. A contrasting text titled "Life of Ko Ihwa and History"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flow of interviews. Since the interviewer does not play the role of speaker of this written text, it does not provide a narrative context.

An interview becomes an oral history when the text is available for general research, reinterpretation, and verification. When the written text has a narrative context and an interviewer's interpretation, and if the recording is provided in addition to the written text, we can read it very well.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